

공룡과 함께하는 어린이날... “해남공룡박물관에서 만나요”

해남군, 5월 5~7일 사흘간 어린이 공룡대축제 개최 특별 프로그램 확대·관람객 볼거리·즐길거리 확충

어린이날 연휴기간 땅끝해남에서 어린이 공룡대축제가 펼쳐진다.

해남군은 오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 사흘간 해남공룡박물관에서 2023 해남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개최한다.

‘쿵쿵! 공룡찾아 해남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해남공룡박물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운영된다.

군은 기존 어린이날 공룡박물관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가족단위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볼거리, 즐길거리를 확충해 어린이 공룡대축제를 해남을 대표하는 봄축제로 마련했다.

축제는 공룡박물관 앞 잔디밭에 주무대와 어린이 놀이터, 각종 체험부스가 마련돼 3일내내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공룡가족 아이사랑음악회를 비롯해 해군 군악대 공연, 어린이OST 음악회 등 공연 프로그램과 함께 공룡버블 퍼레이드, 마술·서커스·드로잉·비눗방울 쇼 등이 이어지고, 공룡열차를 타고 천연기념물인 우항리 공룡발자국 화석지를 돌아보는 공룡발자국 탐험대, 공룡가족 운동회, 어린이 사생대회 등 가족단위 참여 프로그램도 공룡박물관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공룡박물관 잔디밭에는 30m 에어바운스와 레일기차 등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수 있는 대규모 놀이 공간을 조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룡박물관 실내에서도 무료 관람과 함께 공연·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운영된다.

축제가 열리는 해남공룡박물관은 400여점의 공룡 관련 화석과 화석전시물들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의 공룡 전문박물관이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되는 알로사우루스 진품화석, 놀

이 21m에 이르는 조바리아, 공중에 재현된 우항리 익룡 등 45점의 공룡진화화석을 비롯, 각종 전시물들의 거대한 위용은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의 세계에 도착한 듯한 착각을 들게 하기 충분하다. 박물관은 시대별 공룡실, 중생대 재현실, 해양파충류실, 익룡실, 새의 출현실, 거대 공룡실 등 전시실과 공룡관련 영상을 상영하는 영상실, 어린이 공룡교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금호호의 갈대밭과 어우러진 330만㎡의 넓은 야외 공원에는 식물 크기 공룡과 놀이 시설이 조성돼 가족단위 관광객들과 어린이 체험학습 장소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공룡박물관이 소재한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천연기념물 394호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최대, 익룡 발자국 크기(25~30cm)와 규모, 세계최초, 익룡, 공룡, 새발자국 화석이 한 지역에서 발견되는 유일한 곳, 세계최고, 8300만 년 전 생성된 물갈퀴새 발자국 화석이라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이다.

해안가 5km에 이르는 퇴적층을 따라 조각류 공룡관, 익룡조류관, 대형공룡관 등 3개의



보호각이 조성돼 있어 울퉁울퉁 패인 발자국 등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

명현관 해남군은 “해남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공룡화석지인 공룡박물관에서 처음으로 축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린이들이 가장 좋

아하는 공룡도 만나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추억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월출산 품속 10만 평 녹차밭에서의 힐링 ‘강진 월출산 봄소풍 축제’ 5년만에 열려



강진군은 ‘월출산 봄소풍 가는 날 축제’가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월출산 자락 아래, 강진다원 녹차밭 일원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축제의 주무대는 월출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으로 꼽히는 금릉경포대 앞의 주차장 공간에 마련된다.

월출산은 설악산, 주왕산과 함께 국내 3대 암산으로 손꼽히며, 33.3ha(약 10만평)의 녹차밭은 아모레퍼시픽의 ‘오실록’에서 운영하는 차밭으로, 큰 일교차와 맑은 안개가 녹

차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키워내는 녹차의 성지이다.

월출산 봄소풍 축제는 2017년에 처음 시작해, 2018년까지 2회에 걸쳐 개최되었다가, 올해 5년간의 공백을 깨고 다시 개최된다. 그동안 미뤄왔던 만큼 풍성한 행사와 다양한 체험 거리가 관광객을 기다린다.

모두 3개 분야에 34개의 체험과 놀이 행사가 준비되는 이번 축제 가운데 ‘어느 봄날의 브런치’는 녹차밭 일대에서 하얏트 봄을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간단한 브런치와 돛

자리가 2인 기준으로 2만 원에 제공된다. 4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진행되며 하루에 100세트가 선착순으로 사전 접수가 필요하다. 현재 토요일 예약은 완료된 상황이다.

차 소풍도 있다. 한없이 펼쳐진 녹차밭 한 가운데서 펼쳐지는 다도 체험은 ‘비우고 내려놓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를 선물하고, 수로 위에 술잔을 띄우고 그 술잔이 자기 앞에 올 때마다 시 한 수를 읊었던 풍류, ‘유상곡수연(流觴曲水宴)’이 백운동 원림에서 술 대신 차로 재연하는 행사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열린다. 행사에서는 ‘사랑가’ 등 가여금 연주를 라이브로 들을 수 있다.

대형 녹차밭과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달빛한옥마을’, 담양 소재원, 완도 부용동과 함께 호남 3대 정원이었던 ‘백운동 원림’ 등을 강진군 문화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걸어보는 트레킹 코스도 ‘이가월기(이야기가 가득한 월출산 기행)’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된다. 약 1시간이 소요되며, 스탬프를 찍어오면 강진사랑상품권 5천 원을 받을 수 있다.

29개의 아름다운 한옥이 그림엽서처럼 펼쳐진 강진달빛한옥마을에서는 4월 22일 오후 4시, 사월의 달빛콘서트를 열며, 축제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월출산 등반 산행도 빼놓을 수 없다. 월출산 정상인 천황봉에서 인증샷을 찍어오면 해당 부스에서 상품권을 증정한다. 역시 선착순 100명이다.

강진=김영일기자

완도군,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신청하세요 문화복지비 연 20만 원 지원...6월 30일까지 대상자 모집

완도군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및 자기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에게 연 20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 카드 지원 사업’ 대상자를 6월 30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3일 이전부터 전남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95년~2004년 출생자이다. 단 ▲복지포인트(카드)를 지급 받는 공공기관 근무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수당 대상자, ▲전남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되며,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

자는 문화누리카드 11만 원을 제외한 차액 9만 원만 지급된다. 또한 1인당 연 1회 지원되어 2월 신청하여 선정된 대상자는 중복 신청 및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은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협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월별 신청이 완료되면 적격 여부 확인 후 2개월 후 체크카드를 지원될 예정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장흥군, ‘농산물 안전하게’ GAP 인증 기본교육 실시

장흥군이 GAP(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에 발 벗고 나섰다.

장흥군은 올해 GAP 인증 목표를 전체 농가의 9%로 설정했다.

지난 12일에는 딸기, 표고버섯, 생강, 쌀, 밀 등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했다. GAP 인증은 생산, 수확, 유통 과정에서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잔류할 수 있는 각종 위해요소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위생·안

전관리 체계다. 유럽, 미국, 칠레, 일본, 중국 등 주요국가가 시행중이며 우리나라도 2006년부터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교육은 GAP 인증 전 필수 이수사항으로 갭신농가의 경우 2년에 1회 이상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GAP 신규인증 신청은 작물 생육기간 2/3경과 전(수확 한달 전) 신청이 가능하며 GAP 인증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안전 성분분석비는 전액 지원된다.

장흥=김도영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